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6.27 -
7.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두산인문극장
지난 프로그램 보기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두산인문극장은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을 주제로 진행해 왔다.
2023년은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코로나19는 나이 든 이들에게 더 가혹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에게 치명률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해 돌봄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고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고립은 육체적 분리뿐 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까지 의미한다. 코로나19가 노년이라는 나이에 대해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의 노령화는 일찌감치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노령화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상대적으로 더 길고 천천히 겪어가는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대로인 채로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슬픔이 될 것인가?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의 법칙에 균열을 내고 있다. 기존의 균형과 조화가 분열과 충돌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이들의 돌봄이 후손들의 번성을 돕는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나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나이를 이해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합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에서 나이는 계속해서 화두다. 어떤 시기는 나이 등을 기다리고 어떤 시기는 도망치고 싶다. 나이는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경험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이 더해지는 탓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노화'와 '세대'로 이어지고, '인구', '돌봄', '테크놀로지'로 확장된다. 그 테두리에 '갈등'과 '사회문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 '두산인문극장 2023'은 이런 키워드를 통해 나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 지혜는 서로 다른 나이의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 한 사람의 일생에 펼쳐진 매년의 나이를 일련의 호흡으로 어루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공연

5.2-5.20

댄스 네이션

작 클레어 배런 Clare Barron
번역 함유선
윤색/연출 이오진
드라마터그 장지영
출연 홍윤희 이미라 윤현길 마두영 황미영 백우람 강보람 부진서 장호인

5.30-6.17

20세기 블루스

작 수잔 밀러 Susan Miller
번역 최유솔
윤색/연출 부새롬
출연 이주실 박명신 강명주 성여진 이지현 우미화 류원준

6.27-7.15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작/연출 정진새
희곡개발리서치 백종관 Kayip
드라마터그 양근애
출연 김승연 최희진 황은후 전선우(목소리) 김준우 권은혜 김정화 유다애

4.19-5.20

눈은 멀고 구나 장서영 전명은

@두산갤러리

4.3 (월)

나이와 자아 정체성

엄정식 철학자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연강홀

4.10 (월)

가장 큰 걱정: 먹고 늙는 것의 과학

류형돈 생물학자 (뉴욕대 의대 교수)

4.17 (월)

인구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불균형: 전망과 대응

이철희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4.24 (월)

세대갈등과 세대 간 소통

신진욱 사회학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6.19 (월)

갓생살기를 위한 삶 디자인 전략

정희원 의사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6.26 (월)

노인과 로봇

신희선 과학학자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원)

7.3 (월)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인류학자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7.10 (월)

적정한 삶: 균형잡힌 삶이 역량이 되는 시대

김경일 심리학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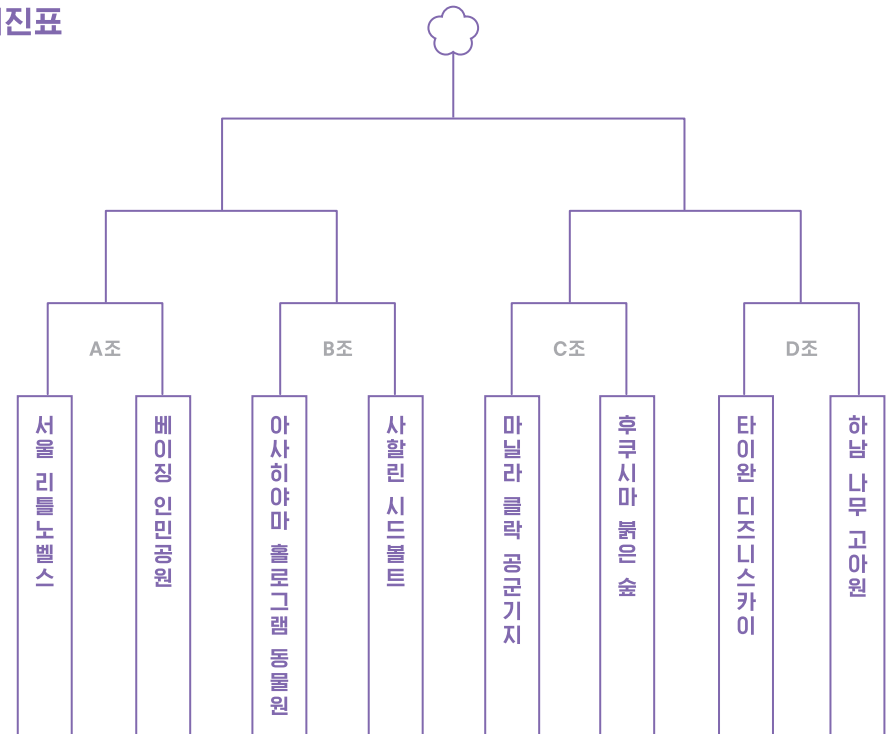
시놉시스

40일간 이어진 화재로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동물과 식물, 인간 종(種)을 대피시키기 위해 여덟 대의 배가
바다로 출항하지만, 모든 종자가 그 선택을 받을 수 없기에
탑승객들은 생존을 위한 경기를 치른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판도(PANDO)호에는 한국의 과학보육원 '리틀노벨스'
출신 동기생인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 메이, 식물학자
에이프릴, 미국 공군 약토버가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다.

등장물 소개

- 사회자** AI, 서바이벌 게임의 진행자, UN FAO
(유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인공지능 의사결정자
- 벨보이** AI, 크루즈 판도(PANDO)호 소속 객실 승무원 로봇
- 조킹박사** 과학보육원 리틀노벨스 원장
- 메이** 리틀노벨스 출신 천재 물리학자
- 약토버** 리틀노벨스 출신 미국 공군소속 군인
- 에이프릴** 리틀노벨스 출신 식물학자
- 미치 마우스 디즈니** 타이완 디즈니스카이 테마파크 캐릭터 인형
- 릴리** 반은 인간 반은 로봇, 에이프릴의 입양 딸
- 어린 나무** 대한민국 하남 나무 고아원
- 고사리** 중국 베이징 인민공원
- 스트로부스잣나무 씨앗** 러시아 사할린 시드볼트(Seed Vault)
- 은행나무** 일본 후쿠시마 붉은 숲
- 비버** 일본 아사히야마 홀로그램 동물원

대진표



믿음의 무게를 느낀다

이창환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

시간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익숙한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다.

시간에 맞서는 과학자의 삶을 공감해 본다.
과학자로서의 사명과 운명 또한 공감해 본다.

2

왼손잡이 리틀노벨스

왼손잡이 뉴트리노(neutrino, 전기적으로 중성인 소립자의 일종)의 발견은, 엔트로피(entropy, 물질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로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상태함수)로 이해하던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입자 반응으로도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였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가오는 왼손잡이 입자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가오는 오른손잡이 입자가 있다. 그런데 입자와 거울 속 입자의 모습은 같지만 다르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같지만, 도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즉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되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가 된다.

왼손잡이를 추월하여 뒤돌아보면 어느덧 오른손잡이가 되어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달려 추월당하지 않으면 한 번 왼손잡이는 영원히 왼손잡이다. 시간을 거꾸로 해도 왼손잡이는 여전히 왼손잡이다. 질량이 없어 빛의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이 태어난 입자의 운명처럼.

“빅뱅. 무작위적인 요동에 의한 입자의 탄생. 여기까지 3분 경과.”

무작위적인 요동에 의해 왼손잡이 입자와 오른손잡이 입자가 태어날 확률은 반반이다. 그런데, 왜 뉴트리노는 왼손잡이일까. 질량이 없어서? 질량이 너무 작아 아직 추월당해 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이 둘의 존재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결정해서?

“왼손잡이 리틀노벨스.”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져 버려진 그들. 추월당할 수 없어서 외롭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들. 그들의 탄생과 운명은 확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느낀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3

메이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의 친구인 수학자 괴델은 일반상대성 이론에 미래와 과거가 얽히는 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리처드 물러는 <Now 시간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받았을 충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 불안정하다는 개념, 물리학은 실재에 대한 완전한 기술이 아니며 과거는 미래를 완벽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견딜 수 없었다”

나아가 괴델은 모든 수학적 체계 속에 증명될 수 없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였다. 물리학에서 수학을 도구로 하여 시간을 기술하는 순간, 시간은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숙명을 타고 났는지도 모른다.

시간과 공간 좌표를 도입하여 뉴턴 역학, 양자역학, 상대론을 기술해 왔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시간 측정값 자체의 의미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블랙홀과 웜홀에 의해 미래와 과거의 의미조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시간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한 루프를 향한 함정일지도 모른다. 더글라스 호프스태터의 <괴델, 에셔, 바흐 - 영원한 황금 노끈>에 비유된 메타소원 “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네”처럼.

그래도 메이를 향한 조깅박사의 믿음에 기대어 본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무게를 느낀다.

“아니, 너는 반드시 해법을 구할 거야. 늘 그랬던 것처럼”



종의 쓸모

이소영

원예학 연구자
식물세밀화가

인류가 식물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자연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은 아니었다. 인류를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 약용식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숲에 들어가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식물도감에는 식물의 형태 특징 이전에 약효가 기록되어 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맛있는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류가 사는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식물은 숲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숲의 자생식물은 형태와 유전적 형질에 따라 분류되고 명명되지만, 도시에서 식물은 인류의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고 명명된다. 아프리카 남부에 자생하는 드라세나과 식물 스투키는 도시로 온 후 공기 정화용 관엽식물인 스투키가 되었다.

인간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 삶 또한 쓸모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다.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공부와 일에 몰두하며, 쓸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눈다. 쓸모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러한 기준을 인간 외 생물에도 적용한다. 숲의 식물 중 미관상 아름답고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를 줄이고, 공기 오염을 억제하며 좋은 향기를 방출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을 추리고 선택해 도시의 가로수, 화단과 정원, 베란다 화분으로 가져온다. 도시에서 만나는 식물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쓸모에 의해 선택되고 변형된 형태의 자연이다.

그러나 숲을 떠올려보자. 숲은 약효가 많거나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라고 해서 넓고 좋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숲의 생물은 그저 각자가 가진 원초적 생존력만큼 뒤엉켜 살아가며,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 다른 개체 혹은 종의 가치에 순위를 매기지도 않는다. 양치바른 곳에 사는 할미꽃이든 척박한 바닷가에 사는 해국이든 뿌리내린 이상 제 자리에서 제 몫만큼의 햇빛과 물, 흙의 양분, 자연의 존중을 받으며 살아간다.

야생에서 서양민들레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생태계 주요 종이다. 그러나 인간 기준의 효용성 아래, 도시의 서양민들레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잡초일 뿐이다. 효용성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그토록 추종하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희석하며, 개체 각각이 지닌 가치를 몽땅그린다. 굳이 식물 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 사회 내에서 쓸모라는 기준에 치여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식물을 기록하는 일을 하며 1mm조차 되지 않는 풀꽃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때,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 얼음 아래에서 솟아나는 연두색 잎을 볼 때 모든 생물은 살아 있음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젠가 나 역시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자의 권리를 지지하거나 사회에 쓸모 있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생물이기에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인간 기준의 쓸모는 도시 밖에서 큰 의미가 없다. 높은 지능을 가졌고, 권위 있는 상을 타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역시 서양민들레나 찔레꽃과 다를 바 없는 한 종의 생물임을 자각해야 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끼니를 때우고, 일을 하고, 가끔은 친구와 커피나 차도 마신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쌀, 김치 그리고 빵과 면, 내가 앉은 원목 의자, 닫고 있는 건축물의 자재, 심지어 몸에 바르는 화장품과 샴푸, 비누, 매일 먹는 영양제와 커피, 차..... 어느 하나 식물이 아닌 것이 없다. 나는 매일 식물이란 생산자로부터 받기만 하는 소비자다. 게다가 나는 식물에 그만한 값어치를 지불하지도 않으며, 되려 식물이 사는 공간에 쓰레기만 늘리는 빗쟁이일 뿐이다.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생물종에게 인간 기준의 효용성을 적용해 보자. 과연 우리는 지구에 쓸모 있는 존재일까?

문명의 발전, 인류의 승리라 일컬어지는 사건을 지날 때마다 지구 환경은 위기를 맞았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야생 동식물이 사는 땅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부어 도시를 확장해 갔으며,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전자기기의 발전에 따른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 숲과 들에 에너지 관련 장비를 설치했다. 기후 변화, 공기오염과 물 부족, 식량 부족과 같은 지구의 위기는 문명의 발전과 비례한다.

이와 같은 오랜 역사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곁에서 일하는 내 주변 많은 동료들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기를 호소하고, 지구에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복해 이야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마도 여전히 인간에게 어떤 마음들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 늘 주지만 하는 식물에 대한 고마운 마음, 빛과 물을 나누는 이 땅의 동료에 대한 우정의 마음 그리고 지구 환경을 어지럽힌 죄책감이라는 마음, 멸종해가는 생물종에 대한 연민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언젠가지라도 지구의 모든 생물에게 먼저 손을 내밀 의무가 있다.

너의 시간, 나의 시간, 그의 시간이 서로를 붙잡을 때

정진새

릴리 미생물, 동물, 식물 등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저마다의 생체시계를 가지고 있지요. 이는 지구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체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지구 생명체라는 말이죠. 지구상에서는 24시간 주기로 낮과 밤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에이프릴 생체시계를 가짐으로써 존재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지구라는 환경에 점점 친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생체시계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토버 그래서 타임머신을 만드는 건 바로 이 지구라는 환경을 부정하는 거야.

왜냐고? 인간은 지구를 위한 삶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이지.

(중략)

— 에필로그 중 일부

과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두가 (안)보고 있는 자연(nature)을 무대에 비추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과학을 통해 보게 되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품고 있는 존재성입니다. 그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고급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 연극'이기에, 자연에 대한 정보와 관념을 배우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 한 번 번역하여 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낯설다고 할 수 있는 (공상) 과학의 문법을 주어진 시간 동안 몸에 익혀 소통이 가능한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은 어렵고도 재미있었습니다. 기존의 연극 관습과 편해진 인간의 언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많았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능했던 건, 코로나 모드를 인간의 자속 시간으로 합의하고 그 이후를 모색해 보자는 작가의 뜻에 동의해준 프로덕션 구성원들의 (엇비슷한) 마음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작품의 주제는 앞서 언급한 '에필로그 중 일부'에 써두었습니다. 주제를 알았으니 이젠 이야기에 몰입할 차례! <왼손>팀이 만들어낸 말과 행동, 설정과 풍경, 그리고 세계관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극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두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서로 꼭 붙잡고 있기를. 그 결집력이 풀어지는 순간에 또 다른 해방감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시간의 비밀을 견디는 자, 연극의 진실을 구하리라.

작 연출

정진새

극단 문

작/연출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히생처전>
<액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액트리스 투: 약역전문로봇>
<외로운 개, 힘든 사람, 슬픈 고양이>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브레인 컨트롤> <세월호 오프 퓨처 패스트>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전국싸움대회> 외

각색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햄릿> <꼭두각(鬮), 시간(時間)놀이> 외

수상

2022 동아연극상 희곡상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2021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2021 레드 어워드 주목할 만한 시선 <외로운 개, 힘든 사람, 슬픈 고양이>



미래의 유머는 슬픔을 아랑곳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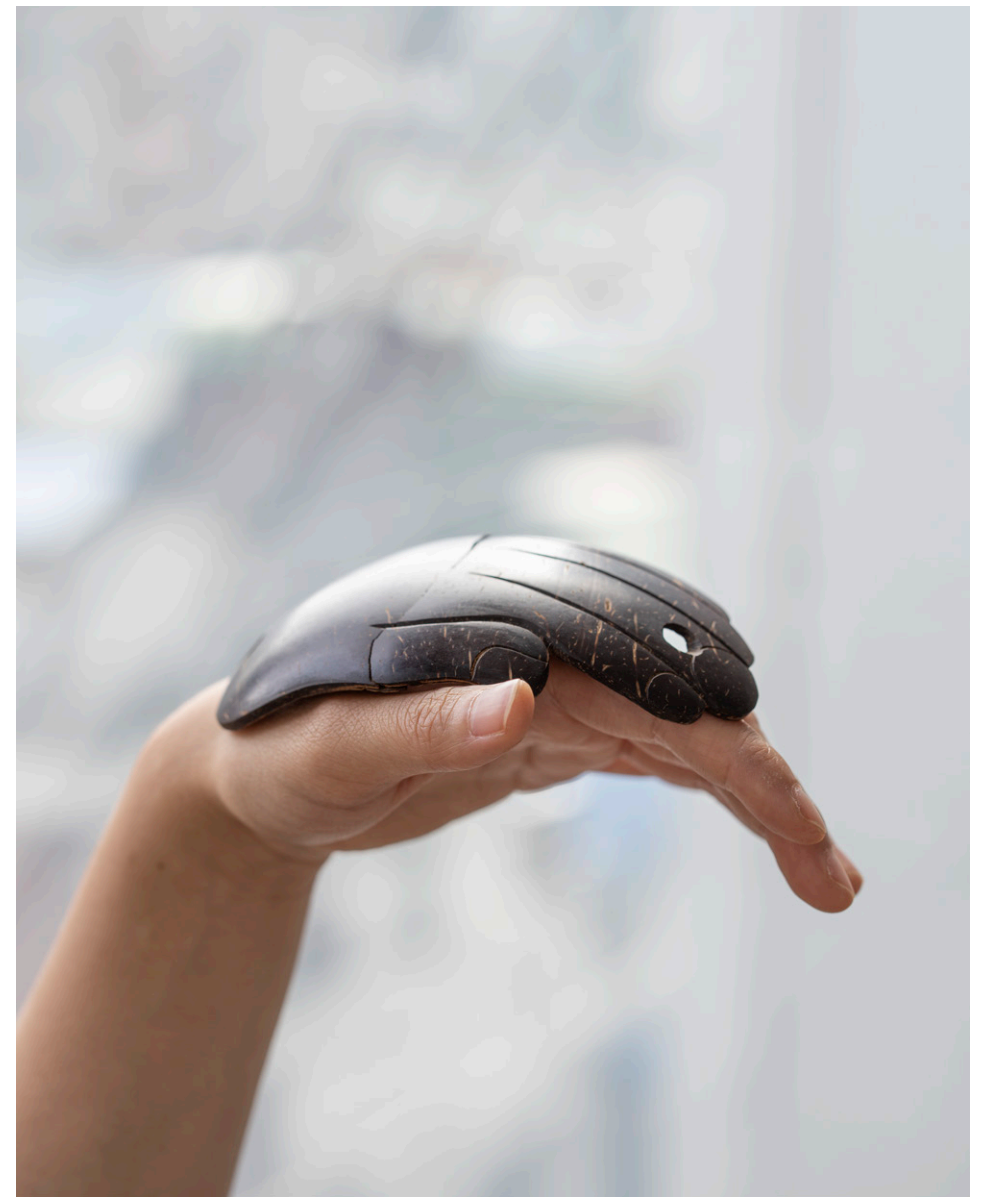
양근애 드라마터그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낯설지 않다. 파묻힌 씨앗이 온몸을 흔들며 땅으로부터 솟아나듯 어떤 일은 마치 예견된 것처럼,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정을 동반하며 닥쳐온다.

대화재가 사십일 째 이어지는 미래의 어느 시점, 인류의 마지막을 위해 판도(PANDO)호에 탑승한 존재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8강전에 오른 자들은 종자와 고도기술을 가지고 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경기 방식은 가위바위보. 누군가는 확률 게임이라고, 또 누군가는 그저 운이라고 부르는 이 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는 SF적 농담이며 SF를 가장한 농담이고 SF를 부수는 연극적 농담이다. 그렇다고 대단히 웃기지는 않다(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쩐지 울기보다는 웃기를 택하는 편이 수월한, 그러나 웃다가 그 웃음의 적절성을 되짚게 되는, 그런 농담에 가깝기 때문이다. 작가는 아포칼립스(Apocalypse, 요한묵시록의 영어명으로 세계 종말을 일컬음)를 다루는 여느 SF처럼 재난과 파국과 멸망의 묵시록을 그려내지만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유머만이 휴머니티로부터 연극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유머에 기꺼이 동참해 보고 싶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나빠지고 있고 너무 오래 잘못을 방치하고 있다고 그러니 다 끝장을 내보자고, 농담을 빙자한 항변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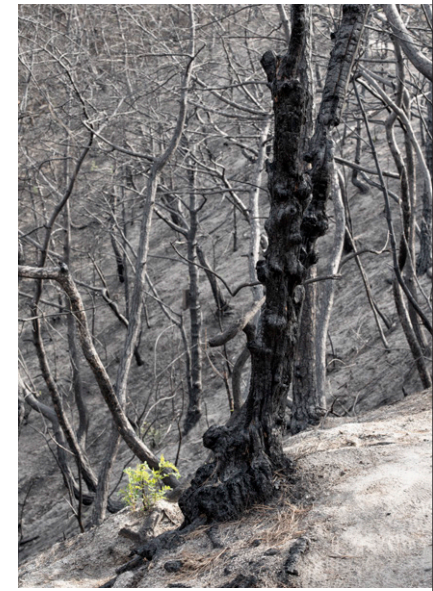
SF 장르에서 과학자는 대체로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입'을 빌려주는 역할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연극에는 무려 과학자가 서넛이나 등장한다. 그것도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고 길러진 과학자들이다. 그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고 연극적 상상을 가미한 엉터리 퀘변이기도 하다. 모험이다. 그 모험을 위해 우리는 '진짜' 과학자들을 모셔서 그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리하여 과학의 세계는 아직 난해하지만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과학은 잘못이 없지만, 과학이 인간을 위해 쓰일수록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배제되고 죽어 나갔다는 사실을. 비단 과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간은 아주 오래 아주 다방면에서 지구를 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지구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이 농담 같은 연극이 인류세의 위기와 인간중심주의를 겨냥한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연극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해왔던 일들에 의문을 표하고 인간 역시 객체의 자리로 돌아와 운일지 확률일지 모를 생존의 순간에 비인간들과 나란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 인류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입장에서만 위험하다. 이 연극에는 인간의 모순과 취약함을 들여다보기 위해 동원되는 과학적 가설과 인간의 승리가 왜 불가능하고 무의미한지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목소리가 있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를 처음 읽었을 때, 무심결에 왼손으로 지칭되는 손을 바라보았다. 왼손은 오른손이 있어야 성립된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오른손은 왼손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열 명 중 한 명은 왼손이 오른손이며 오른손이 왼손인 세계에서, 왼손은 특별하거나 불편한 마이너리티(minority, 소수자)의 지위에 있다. 우리는 이 연극을 <왼손>으로 부르며 거의 매일 왼손을 의식하고 있다. 왼손을 주력으로 했을 뿐인데도 세계를 의식하는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나의 왼손이 잡을 수 있는 손들을 헤아려보기도 한다. 고양이와 자전거와 가방과 인형과 로봇과 책과 유령과..... 인간 외에 인간을 살아내게 하는 왼손들.

작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인간 이후의 세계를 떠올리며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 올해 두산인문극장의 주제인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곧장 수렴하지 않고 지구의 시간과 인간의 욕망을 거슬러 질문을 발산하는 이 연극이 극장에서 곧바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부디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서 더 나은 질문으로 재구성되기를. 우리는 아직 인간중심의 언어를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연극이 인간과 인간의 삶을 미화하지 않는 방법을 탐색하는 중이다.





희곡개발리서치 과정 미니 인터뷰

장경진 공연 칼럼니스트

일정

2023.6.9(금)

장소

두산아트센터 회의실

참석

정진새(작/연출)

백종관(희곡개발리서치/영상)

Kayip(희곡개발리서치/사운드)

◦ 많은 콘텐츠가 작가에서 시작되는 것에 반해,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이하 <왼손>)는 공동의 리서치 작업으로 시작했다.

정진새 2021년에 공동 리서치를 바탕으로 대본을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두산아트센터가 제작 방식의 다변화를 고민 중이었고, 나 역시도 앞으로의 희곡은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겠다 싶었다. Kayip 감독님과 백종관 감독님께서 그래픽 자료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를 주셔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내가 가닿을 수 없는 질감을 알 수 있게 된 계기였다.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작가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

Kayip(카입) 서로 다른 매체의 고민과 시선이 창작의 영감이 되어 하나의 텍스트로 완성되는 과정을 실험해 보고 싶었다. 우리의 작업이 프로토타입이 되어 다른 창작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공동작업을 향한 기대가 우려도 된다. 여러 매체의 작가들이 모여 새로운 창작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 건 아니어서다. 다만, 텍스트의 세계관을 오래전부터 접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작가의 사유를 지속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상상의 여지가 많았다. 관객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결과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으나, 과정에서의 경험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

백종관 삼일로창고극장의 제안으로 연극인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다. 코로나19로 여러 파트가 함께 하는 매체의 근본적인 면을 사유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다. 해당 작업을 통해 나 역시도 제작 방식을 생각하게 됐고 그 고민이 이번 작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술적으로 연극에서 구현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지만, 서로 다른 매체의 창작자가 각자의 영역을 제안하고 얘기할 수 있어 좋았다.

◦ 'Age'라는 주제에서 어떤 것들을 연상하게 됐나?

정 나에게 이 주제를 제안한 것에는 서브 텍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족주의라든가 돌봄을 통한 인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드라마로 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대는 공통의 관심사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이야기도 은근히 많이 했다.

카 일반적으로 'Age'라고 했을 때 나이 듦에 대한 사회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데, 리서치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음악 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즘의 음악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 과정에서 '서바이벌'이라는 형식이 채택됐고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대화에서 작품의 기반인 '서바이벌 게임'의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아이들의 진화 과정이 제대로 표현되는 점도 흥미로웠다.

백 같은 상황이라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로 멀리 건너뛰는 걸 좋아한다. 유장한 스케일의 시간을 다루는 SF 콘텐츠들을 많이 공유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파운데이션> 같은 작품들. 'Age'의 개념 정의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소재 중 하나는 '복제 인간'일 수 있을텐데, 그런 차원에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서, 3.11 동일본 대지진을 다룬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을 보기도 했다.

◦ 이 과정에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근미래로 설정되고 장르가 SF로 결정되었나 보다.

정 마침 역사와 철학이 아닌 온전한 과학에 입각한 '시간'에 대한 책을 보던 때라 '시간'을 먼저 살피게 됐다. 여러 작품을 공유했는데, 그중 <만달로리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들어간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SF의 인물들은 고아고, 친족이 아닌 다른 종을 살리기 위해 부족 전체가 멸망한다. 유머도 있고 <스타워즈> 외전이고. 어떤 SF에는 기술의 발전이든 시간의 흐름이든 창작진이 공들여 만든 굉장히 예언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마주할 때가 정말 좋다. 다들 SF를 좋아해서 이야기가 잘 통했다.

백 과거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아서 C.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을 연결해서 쓴 글이 있다. SF에는 현실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얼토당토않은 사건들이 있지만, 동시에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현실을 지적한다. SF의 그런 지점을 좋아한다.

카 사실 나는 시대극을 좋아한다. (웃음) 소개해 준 작품 중에서는 <애프터 양> 얘기가 흥미로웠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작품에 비인간 존재들이 중요 캐릭터로 등장하게 된 것 같다.

◦ 인간 중심에서 벗어난 사고가 인상적이었는데, '식물'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

정 '인류세'의 고민으로 시간과 식물에 관한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다. 특히 Kayip 감독님이 생체 시계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의 하루/1년 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체는 저마다의 수명에 따라 각자의 시계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백 시각화된 데이터를 많이 참고했는데, 시간이나 시대에 관한 이미지들이 나무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죽보의 이미지적인 형태도 식물의 뿌리나 줄기와 자연스럽게 겹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Age'를 이야기할 때 식물적인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 1년 전쯤 들여놓은 화분들이 있다.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새잎이 나 있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더라.

카 나 역시도 어떤 필요에 의해 화분을 들고, 식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키우지 않으려 했다. 지금은 여러 안정화 과정을 거쳐 몇 개의 화분이 생겼다. 여전히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는 건 즐겁지만 '애가 여기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된다.

정 부담스럽다는 말이 와 닿는다. 식물은 계절별로 생로병사가 보여서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신기하다. 흙과 물만 있으면 뭐든 심어도 어떻게든 싹이 나고, 그 안으로 어떻게든 벌레가 들어온다. 옛날에는 당연히 벌레를 죽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실 동물과 식물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달라서 식물과의 접촉 지점은 많지 않았다. '도시인 정진새 삶에 식물이 어디 있어'라는 생각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 이번 작업을 통해 새롭게 자각한 것이 있을까?

정 기초과학자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기본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과거에서 현재로 쌓여오는 지성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다음 스텝으로 천천히 가는 모습도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문·사·철(문학·사학·철학)을 좋아했다. 팬데믹 시기가 오기 전에는 대체로 인간의 문제들을 문사철을 통해 풀어나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았다. 과거의 철학자 중 일부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인간 주체를 혐오하고 차별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금은 식물학자나 동물학자 혹은 그런 담론의 발화자와 당사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카 과학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반대쪽에서도 수용한다. 그런 과학적 방법론 때문에 기반에 기반이 더해지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론이 흥미로웠고, 이런 태도는 과학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중심부로부터 계속해서 밀려난다. 이런 사실들이 인간을 계속 작게 만들면서 성찰의 영역을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빛을 타고 이동하는 아인슈타인의 상상이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됐다. 예술과 과학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상호 호환될 여지가 많다고 느껴진다.

◦ 〈원손〉을 통해 관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 원손이 원손을 만난다는 건 다수 종 혹은 우세에 놓인 어떤 존재가 아닌, 열세에 있거나 특이한 종들간의 불편한 연대라고 생각한다. 원손과 원손, 특히 셋이 원손을 맞잡는 건 이상한 그림이고 잘 잡히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편한 연대를 시도해 보고 싶다. 다수 종들의 오만한 화합이 아닌 특이하고 낯설고 귀한 종들의 연합도 훈련하고 시도해 볼 때가 아닐까.

연습일지

문수진 조연출

정: 정진새(작/연출)
백: 백종관(희곡개발리서치/영상)
카: Kayip(희곡개발리서치/사운드)

• 사전 리서치

2021년 9월 두산아트센터-정진새 1차 논의
2021년 11월~22년 5월 두산아트센터-정진새-백종관-Kayip
사전 리서치
2022년 6월~12월 피드백/수정/초고 리딩

[개발 회의 내용 일부 발췌]

정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다 담아내고 '시간을 억지로 흘러 올린다.' 라는 개념을 만들어 활용. 지난번에 주신 의견 모티브로, 정신과 시간의 호텔을 바다 위 크루즈로. 크루즈는 새로운 아이디어이나, 기존의 히라타 오리자 등 작업에서 일부 사용한 적도 있음. 크루즈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작업함. 바다 위 크루즈, 정신과 시간의 호텔 안에서의 이야기인 대화인지, 10분씩 참여 주체들이 경연하며, 10분 혹은 끊게 되면 탈락된 존재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으로 설정. 조금 무리수이긴 하지만, 시간 탈주,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임. 너무 많은 설정일까, 크루즈, 타임머신까지 가는 것, 떨어내거나 하는 것 고민. 줄리언 반스의 노아의 방주, 40일간의 홍수, 화재 상황, 멸종 등. 잠수함과 크루즈 고민. 크루즈가 직감으로 적절한 듯.

카 종말 관련한 유튜브 영상 링크 공유. 기후위기 등 흥미로운 이슈 발견. 판정 관련해서 작가님께서 더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드는 생각은,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존재들이 서로 투표해서 그게 재미있는 변칙이 생길 수 있도록 인간을 떨어뜨리기 위해 답합이 생길 수 있고 인간들이 먼저 떨어질 수 있는. 식물 언어 통역 관련해서는 사운드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음. 가능성 있을 것 같음.

정 제가 막혀 있는 지점은 주인공들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과학 도서관 같은 공간이 (〈블랙 위도우〉의 과학자 버전) 국가에 의해 웨도우 조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닌, 애초에 과학적인 지식을 지원하는 인문학 고아원에서 과학자로 길러지는. 〈네버 렛 미 고〉는 장기를 떼어가지지만, 이 설정은 조금 더 순한.

백 제 느낌으로는, 과학을 실질적인 제도, 제품으로서 매우 생산적인 차원의 것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묘사하는 역설적인 과정에 작품의 의도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음. 캐릭터들이 속해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그 조직이 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식물과 동물이 함께 나타나야 할 듯.

• 연습일지 – 테이블

5월 2일, 전체 프로덕션 창작진들의 첫 테이블 회의가 시작되었다. 테이블 작업기간 동안에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관과, 연출 & 드라마터그가 생각하는 작품의 주안점,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위주로 이어갔다.

이슈 토론: 극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 이해. 설정의 타당성, 캐릭터의 가치관을 갖고 무대에 임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통해 프로덕션 팀 내의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했다. 너무 극이 산만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배우들의 아이디어 제안도 진행되었다. 시도해 보고 싶은 표현이나 연기적인 지점 발견해 보고자 했다. 장면 연습 전에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장면에서 쓸 수 있는 자기 전략을 모색했다.

[연출 주안점]

과학자들에게는 대중이 기술을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문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학인데 온갖 설명 기술, 설명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재미있고 익혀보고 싶다.

Age에 의거한, 과학과 신체행동연기, 두려움에 대한 표현. 대사를 조금 더 진정성 있고 진심 어린 말들로 고쳐갈 예정이다.

[드라마터그 피드백]

우리 연극은 '다 망하는 이야기'로 가는 것인데, 그 파국을 잘 그려내자. 인간은 결국 자기의 관점을 고수하는 모습이 있고 그걸 각 캐릭터들이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어것장을 놓는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자체를 파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위바위보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 아니게끔 다루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질문하는 것들이 실은 외양을 취하는 것일 뿐, 질문 자체를 폐기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연습일지 – 워크숍

[과학워크숍 #1]

'시간이란 무엇인가' – 이창환(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 복잡계의 시간

지구의 엔트로피가 감소 : 무질서→질서로의 이동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면 우주 전체가 무질서해져서 뿌옇게 된다. 그것이 우주의 '끝' 은하, 별, 행성도 다 사라짐.

⇒ 이걸 피할 방법은 아직 없음.

엔트로피가 균일해진다는 것은 뭉쳐있지 않는다는 것, 질서가 균등하지 않아진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점점 팽창되면 지구도 잡아먹힘.

*시간을 볼 때는 부분이 아닌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함. 절대 나는 우주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2. 시간 역전 대칭성

진공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꼭 찬 공간이다. '있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림. 변화를 인지하면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의 실체는 보는 방법을 기준으로 함.

3. 입자와 반입자

입자와 반입자는 원래 진공에 있다. 엔트로피는 복잡계, 고려 요소가 많음 그러나 입자-반입자는 진공 자체. 시간이 역전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복잡계는 '진공'에 있고, 그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변화가 뭉쳐있으면 복잡계. 이 진공에서 큰 변화가 있으면 인지가 된다. 결국 내가 대상을 '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독립된 존재가 아닌 '간섭'이라고 함. 관찰을 하는 순간 그 대상의 패턴이 바뀐다. 즉 비독립적. 물리도 관찰하는 순간 대상의 성질이 달라짐.

물리학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엄청 중요함. 왼손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정할 때 각 손에 따라 흐름이 바뀜. 우주에서 이 진공에서 진행되는 입자들의 방향이 엄청 다름. 예를 들면 왼손잡이만 있는 입자가 있기도 함. 시간의 어떤 특정한 흐름이 엔트로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임. **왼손이 자연의 시간의 흐름과 맞아질 수도 있다.**

[과학워크숍 #2]

'기후위기와 식물 생태'

— 강호정(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1. 과학자의 삶 & 과학적인 삶

Ars longa, vita brevis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2. 작품 속의 과학

— 물이 어떻게 나무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물은 계속 증발함.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증발'이 조금 더 우세.

— '이형접합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질 때 부모의 유전자가 반반 균등하게 나가지 않은 것. 그러면 자손이 만들어질 수도,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나 부모 품종과 똑같이 안될 수 있음.

— 연극에서의 과학: 과학자는 자꾸 가르치려고 함. 과학자들은 계몽주의적 관점이 강한 듯.

*자연과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음. 많은 구성원 중 하나인 것이지, 개인의 입장에 관심 없음.

생태학자들도 지구를 평형이라고 생각했음. 교란이라는 일이 벌어지면 잠시 흐트러지지만 다시 그 상태로 간다고도 생각함
→ 교란은 '산불', '홍수' 등이 있음.

식물은 심장이 없어서 펌핑하지 않음. 아주 작은 관들이 발달. 빨대로 빠는 것 같은 압력이 생겨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은행나무가 상징적인 이유: 은행은 오래전 출현해 바뀌지 않고 보존한 유일한 생물. (이끼는 처음에 출현해서 현재까지 엄청 바뀐) 근거는 '화석'

◦ 연습일지 — 연습부터 공연까지

'너의 왼손과 나의 왼손의 그의 왼손을 잡을 때'의 모든 대사에는 번호가 적혀있다.

연출이 작성한 세계관 타임라인 파일과 대본의 넘버를 기반으로 장면을 만들면서도 궁금한 대사의 넘버를 적고, 그 넘버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다.

막간극 회의는 배우리 안무가의 지도 아래 작품의 대사를 어떻게 움직임으로 살릴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작업하였다. 나무의 역사를 작 중 짧은 공연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벨보이, 릴리, 디즈니 역할의 세 배우가 함께했다.

캐릭터 의상, 음악, 소품들이 들어오면서 각자의 캐릭터들의 그림이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비인간'을 어떻게 무대에서 구현해 낼 것인가, 그리고 그 비인간 캐릭터들이 어떻게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룸과 동시에 작품의 주제 의식을 잃지 않도록 장면 연습을 진행 및 보완했다.

장면 연습에서 어느 정도의 런스루가 가능해졌을 때 즈음, 대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각자의 앙상블이 조화로우길 수 있도록, 대사와 장면이 익숙해졌을 때 이 작품 안에서 서로 '놀면서' 할 수 있도록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김승언
조킹박사 역

연극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나는 거위〉 〈거.리.끼.다〉 〈두 발 자유화〉 〈이상한 나라의 홀리스〉 〈미래, 도시〉 〈애도하는 사람〉 〈아담스 미스〉 〈스피드. 잡스 : 질풍노동의 시대〉 〈잡온론〉 외



최희진
에이프릴 역

연극
〈노스체〉 〈잔인하게 부드럽게〉 〈슈미〉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산악기상관측〉 〈테라피〉 외

영화
〈다음 소희〉 〈브로커〉 〈경아의 딸〉 〈타인의 삶〉 외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멘탈코치 제갈길〉 〈더 패블러스〉 외



황은후
메이역

연극
〈더스트〉, 〈당선자 없음〉, 〈그 나쁜 선악과는 어떤 XX가
따먹었을까〉, 〈작가〉, 〈그을린 사랑〉, 〈마른대지〉, 〈괄호는
괄호와 괄호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 〈희곡상을 위한
희곡쓰기〉, 〈산책자의 행복〉, 〈와이프〉, 〈퍼포논문-좁은 몸〉,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2〉, 〈암전〉,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메이크업 투 웨이크업〉, 〈왕과 나〉, 〈갈매기〉, 〈그리스의
연인들-페드라〉 외

수상
2019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와이프〉



전선우
사회자역

연극
〈영지〉,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학교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한다. 우리 엄마
가출했는데요.〉, 〈외로운 개, 힘든 사람, 슬픈 고양이〉,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낭독의
목적〉, 〈천국 호텔〉, 〈달랑 한 줄〉, 〈여름에 하는 연극〉,
〈파트너〉 외



김준우
악토버 역

연극
〈종로 갈매기〉, 〈연꽃정원〉, 〈움직이는 숲 씨어터게임 1.0〉
〈허생처전〉, 〈외로운 개, 힘든 사람, 슬픈 고양이〉,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 〈다스 오케스터〉
〈브레인컨트롤〉, 〈올모스트 창천〉, 〈전 인민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전국싸움대회〉, 〈가을반딧불이〉 외

드라마
〈SKY 캐슬〉 외



권은혜
벨보이 역

연극
〈몬순〉, 〈앨리스 인 베드〉, 〈드랙×남장신사〉,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파우스트 엔딩〉, 〈스카팡〉
〈불꽃놀이〉, 〈레드올랜더스〉, 〈7번국도〉, 〈드라곤킹〉
〈원이엄마〉, 〈로미오와 줄리엣〉, 〈미녀와 야수〉, 〈더 정글북〉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외

영화
〈부치업〉, 〈나는피해자가아니다〉 외

드라마
〈사막의왕〉 외



김정화

미치 마우스 디즈니 역

연극

〈태양〉, 〈이홍도 자서전〉, 〈이갈리아의 딸들〉, 〈손님들〉,
〈쌌샤인의 전사들〉, 〈다페르튜토 스튜디오〉 외

수상

2021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태양〉



유다예

릴리 역

데뷔작



김정란

수어통역 악토버 역 외



문지연

수어통역 조킹박사 역 외



이수현

수어통역 메이 역 외

연극

〈벚꽃동산〉, 〈재크의 요술지갑〉, 〈환등회〉
〈스카팜〉, 〈틴에이지 덕〉, 〈달뜬 밤, 한길로〉
〈풍편에 넋짓 들은 '아가멤논'〉, 〈합체〉
〈노랑의 보색은 검정이다〉, 〈스물여섯〉
〈당선자 없음〉,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어디로 갈지 미루는〉



정지현

수어통역 에이프릴 역 외

아동극

〈친절한 돼지씨〉

뮤지컬

〈드림머스〉



조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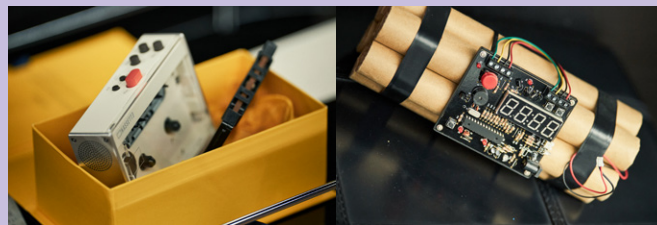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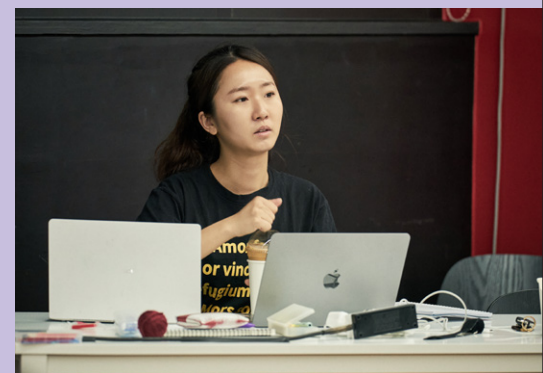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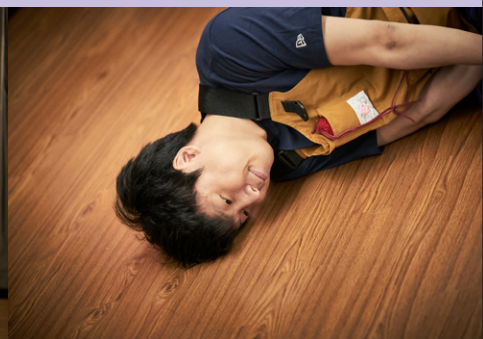
수어통역 사회자 역

연극

〈댄스 네이션〉, 〈만선〉, 〈사슴 코딱코의
재판〉, 〈환등회〉, 〈스카팜〉, 〈틴에이지 덕〉,
〈달뜬 밤 한길로〉, 〈엘리스 인 베드〉









무대 스케치

김혜림 무대·소품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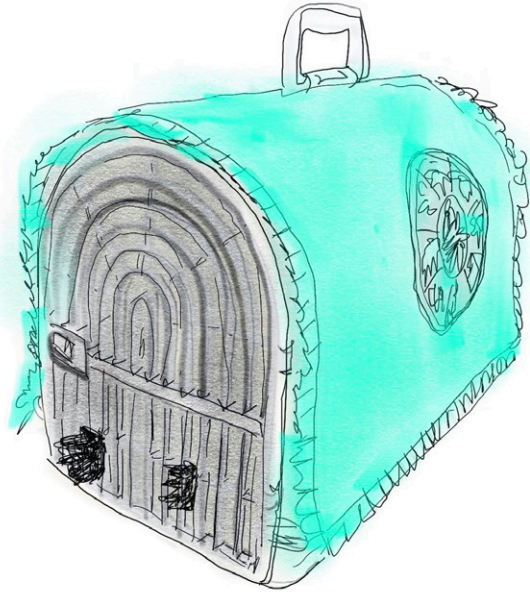
소품 스케치

김혜림 무대·소품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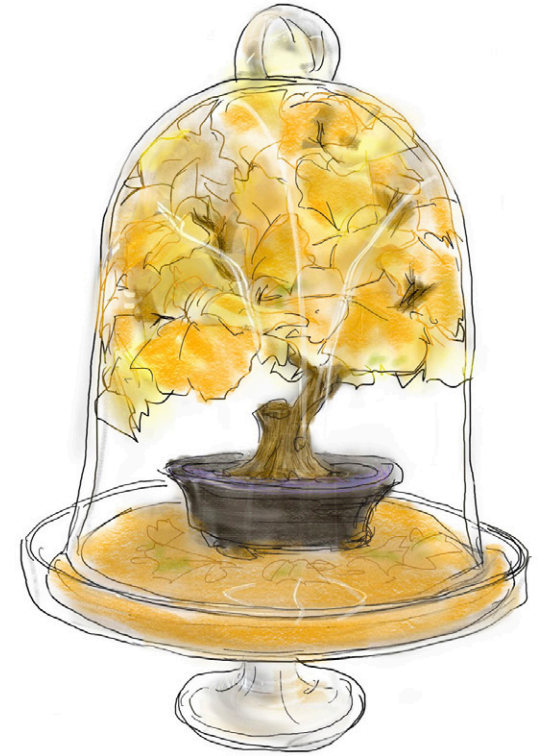
베이징 인민공원
고사리



아사히야마 홀로그램 동물원
비버



후쿠시마 붉은 숲
은행나무



하남 나무 고아원
어린 나무





조킹박사



에이프릴



메이



악토버



벨보이



미치 마우스 디즈니



릴리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는 근 미래의 일을 다루는 SF이지만 오래된 미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극의 환경을 위한 소리를 만들고자 했다.

시대적인 레퍼런스가 분명한 소리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그것들을 무작위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아날로그 기기의 노이즈와 디지털 기기의 글리치(glitch, 사소한 결함 소리)가 뒤섞인 소리의 혼돈 상태를 만들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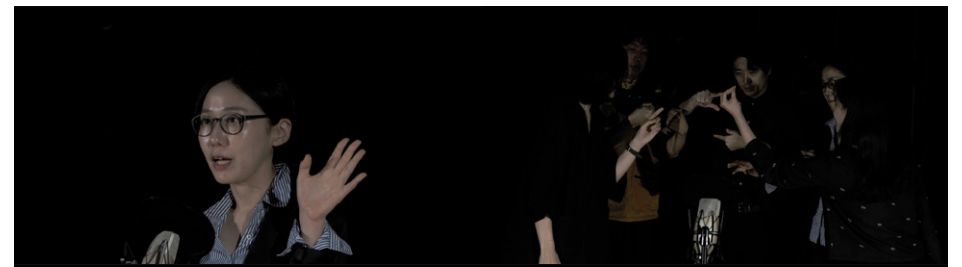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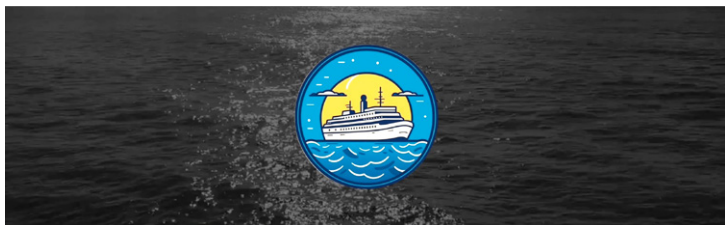
이를 통해 재난 상황이라는 극의 맥락을 반영하기를 바랐다. (이러한 '근본 없음'은 선곡의 원칙에도 반영되었다.)

4면 무대라는 공간적 구성은 크루즈라는 극의 공간을 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라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실제 페리션에서 녹음한 소리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음을 배치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들을 통해, 극의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삽입곡 듣기

The image displays a detailed musical score for a play. It consists of multiple staves of music, including vocal lines and instrumental accompaniment. The score is written in a standard musical notation style, featuring various dynamics such as *pp*, *mf*, *f*, and *ppp*. There are also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con sord.* (con sordina). The score is divided into measures by vertical bar lines, and the overall structure is organized into systems. The bottom part of the score shows vocal lines with lyrics in Korean, indicating that this is a vocal score for a play.



◦ 막간극 움직임에 대한 과정

'나무의 역사(막간극)'를 만들기로 한 후 처음 희곡을 보며 솔직히 겁이 났다. 희곡을 반복해서 읽고 프로덕션에서 주는 과학, 식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애석하게도 나를 지나가는 글자들을 붙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막간극이 관객에게 쇼(show)처럼 쉽고 재미와 쉬어 갈 수 있는 구간이길 바란다.'라는 연출의 말을 기억하며 대본을 봐도 '쉽고, 재미있는 쇼 (show), 난데없음, 얼토당토' 등의 키워드들은 어느새 어딘가로 사라지고 과학적이며 상당히 예술적 완성도가 있는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상한(?) 의지와 욕심이 생겨났다. 그 욕심의 끝에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책을 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서 생명을 잃은 몇몇의 선인장과 해피 트리 나무까지 떠오르며 '나에게 이 작업은 욕심이었어...'라는 생각만 가득했다. 그야말로 암흑시대!

내가 어둠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허우적대는 나의 손을 잡아준 것은 정진새 연출과 벨보이, 릴리, 미치 마우스 디즈니 역의 배우들이었다. 그들과의 시간은 고정된 나의 생각에 틈을 내주었다. 그 틈으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철이 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다. 빅 뱅! 어른 인간으로 노력하는 것을 잠시 내려 놓아 보기로 한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 인간 어른에서 내려 놓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들을 말해보고자 한다. 가끔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는 순간을 지켜보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놀이에 빠져 활동하고 있는가 감탄하게 된다. 그들은 매우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 느끼고 상상하며 추상적인 이미지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논리를 표현하며 그것을 즐긴다. 유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나도 그 진정성에 가끔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재미(나만 그런가?)'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막간극의 행위자들이 각자만의 엉뚱하고 얼토당토않은 논리의 형태 표현을 최대한 진정성 있게 한다면 그것을 보는 관객도 배우가 표현하는 세계 속에서 유희적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무의 역사는 과학과 식물에 대한 단어들 이 이루고 있다. 어렵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형태의 이미지 속에서 생각을 할테니 그것을 낯설 또는 불편함, 어처구니없음으로 표현해 웃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역시나 연습 초기에 미치 마우스 디즈니, 릴리, 벨보이 역의 배우들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움직임은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나에게도 신선함과 재미를 주었고 연습 과정 속에서 익숙한 것, 당연하게 생각하던 배우 각자의 행동 습관을 인지하여 그것에 반하거나 감각하지 못했던 감각을 깨우고 질감에 집중했다. 형태보다 질감을 우선으로 하여 기성의 이미지 관념을 비틀고 관객에게 새로운 상상을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

접근성 노트 이형

두산인문극장 2023 공연 3편,
접근성 매니저

접근성매니저는 장애, 신체적 특성, 개인의 능력, 고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을 제작·진행하기 위해 관객, 제작진과 소통하고 접근성 장치들을 설계·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산인문극장2023 공연-〈댄스 네이션〉, 〈20세기 블루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에서는 수어통역, 자막해설, 음성소개, 음성해설, 무대모형 터치투어, 문자소통, 점자 리플렛, 관객과의 대화 문자통역, 수어소개영상, 사전설문, 접근성매니저 예매 운영, 하우스매니저 이동지원, 가변형 휠체어석 등 다양한 접근성 장치들을 마련하고 운영했습니다.

[2월 노트]

* 안전한 공간 만들기

◦ 장애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객들이 이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공연용 안내 문구를 새로 제작하고 용어들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주 사소하지만 단어나 용어에 감수성을 담는 것이 편견을 없애고 안정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존재의 부정처럼 느껴질 우려가 있는 '무장애'와 단어 자체에 장벽이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대신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한다.

[3월 노트]

* 장애를 배려하기보다는 고려하고 인식하기

- 배려 [명사]: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 고려 [명사]: 생각하고 헤아려 봄.

◦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임을 인식하기. 시혜적인 태도를 경계하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편견에 부딪칠 때마다 끊임없이 장애 감수성을 복기하며 실수하고 반성하고 직면하고 또 고민하기.

[4-5월 노트]

* 차별 없는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

◦ 공연예술에서의 접근성은 사회복지 실현이 아닌 차별 없는 예술 향유에 목적을 둔다.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비장애인 관객이 으레 그렇듯, 장애인 관객도 보고 싶은 공연을 선택하고 극장에 도달하여 공연을 향유하고 즐기는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다. 그렇기에 창작진이 지향하는 예술적 목표와 미학적 영향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수어통역사는 함께 작품을 분석하고 표현을 고민하며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에 작품의 의도를 채운다. 번역, 수어 연출, 연습 과정을 거쳐 무대에 선다. 자막해설은 청각의 시각화를 시도한다. 대사, 소리 및 음악 정보를 활자, 그림 기호,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현하여 작가와 연출의 의도와 배우가 디자인한 연기가 자막에 실릴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음성소개와 음성해설은 관객과 작품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사전에 소개하거나 공연 중 실시간으로 해설하며 시각의 청각화를 이룬다.

[6월 노트]

* 감각의 전환 또는 확장

◦ 사람들은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연을 감각한다. 이를 인식하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것은 비단 관객뿐 아니라 창작진에게도 감각의 전환 또는 확장의 기회일 수 있다. 극장을 찾는 모두가 접근성에 대한 경험과 새로운 감각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극장의 첫인상인 로비에서 무대모형과 주요 소재 샘플, 소품, 의상 등을 만지며 오디오 가이드를 듣는 무대모형 터치투어를 전 회차 운영한다. 이렇게 터치투어를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폐쇄형으로 진행하지 않고 무대모형을 만들어서 전 회차 로비에 전시하는 데에는 장애의 타자화를 줄이고 장애를 가시화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관객들이 개방형 장치들을 만나며 낯선 경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각자의 질문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두산인문극장2023 공연의 마지막 작품인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는 무대 위에서 8명의 배우, 5명의 수어통역사, 자막해설, 음성해설이 함께 호흡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극장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같은 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객석까지 이 숨이 달기를 바랍니다.

부딪치며 고민한 시도들이 이 극장, 이 공연, 내 옆의 관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6.27-7.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연출·음성해설대본 정진새

희곡개발리서치 백종관 Kayip(카입)

드라마터그 양근애

출연 김승언 최희진 황은후 전선우(목소리)

김준우 권은혜 김정화 유다예

조연출 문수진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무대·소품·무대모형디자인 김혜림

무대제작 MAKERS(메이커스)

(대표: 이종민 / 제작팀: 정우근 차승호

정병문 이승용)

작화 작화공간

(대표: 이남련 / 작화팀: 박지원 김미경 이재형)

무대크루 유성엽 배재현

조명디자인 김형연

조명팀장 오정훈

조명프로그래머 정채림

조명오퍼레이터 박채린

조명크루 이호정 김경호 김병희 김재준 이상혁

사운드 Kayip(카입)

음향감독 김여운

음향오퍼레이터·음향크루 김우람

영상디자인 백종관

영상기술감독 윤민철

영상프로그래머·영상오퍼레이터 윤유리

영상기술팀 김재성

의상디자인 김지연

의상어시스턴트 이아라

의상제작 유니스

분장디자인 장경숙

분장팀 김예슬

움직임 배유리

접근성매니저·자막디자인·음성해설낭독 이청

수어번역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수어연출 김홍남

수어통역 김정란 문지연 이수현 정지현 조유나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이다빈

음성해설오퍼레이터 임민정

관객과의대화 문자통역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접근성 안내진행 정혜민

그래픽디자인 콘택트(kontaakt)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

사진기록(프로필·정물·설정) 전명은

사진기록(연습·공연) 서울사진관

영상기록(연습) 필루미에르

영상기록(공연) 헤즈스튜디오

인쇄 으뜸프로세스

초고 리딩·출연 이종무 최희진 임영준 황은후 전선우

김준우 권은혜 김정화 유다예

도움주신 분 이창환 강호정 윤상은 백송시원 네이처진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이정연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박소연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이보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정소리 이지혜

티켓 이한별 최시윤

사무 박세연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명 황동철 양은지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2024 두산아트랩 공모 안내

두산아트랩은
공연·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7월 12일(수)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10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대상

-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공연기간

2024년 1-3월

선정인원

- 8명(팀) 내외
- * 개인만 신청 가능
- * 1명(팀)당 최대 2편까지 지원 가능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전시

접수기간

2023년 7월 18일(화) - 8월 1일(화)

지원내용

두산아트랩 공모선정자 전시참가
(제작지원비: 1명(팀)당 300만 원)

대상

-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전시기간

2024년 1-2월(선정작가 그룹전)

선정인원

5명(팀)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

두산아트센터 2023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YONKANG
Hall

광부화가들 연극 2022.12.1-1.22

작 리 홀 연출 이상우 김한내 김미란

회란기 연극 3.10-4.2

원작 이잠부 각색/연출 고선웅

장수상화-LAST DANCE 연극 4.21-5.21

작 이연우 전용석 연출 서정완

히스토리 보이즈 연극 6.13-8.13

작 앨런 벤틀 연출 김태형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뮤지컬 11.30-2024.2.18

작사/작곡 닐 바트람 극본 브라이언 힐

Space 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3

롱피쓰 연극 2.2-2.4

작 김도영 연출 손정강 출연 이은지 최경훈

당신은 초록색 펜일까 그걸 쥘

손일까 연극 2.9-2.11

작 이소연 연출 서의경

아파야 낫는다 건강백세! 다원 2.16-2.18

구성/사진 이성직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연극 2.23-2.25

구성/연출 손은지

페이스 타임 연극 3.2-3.4

작 공동구성 연출 박세련

아란의 욕조 연극 3.9-3.11

작 이세희 연출 손은재

국산예수 연극 3.16-3.18

작 공동창작 연출 전용

언스코치드 연극 3.23-3.25

작 루크 오웬 연출 최호영

두산아트랩 극작가 2023 3.30-4.1

작 도은 임태은 김연재

두산인문극장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댄스 네이션 연극 5.2-5.20

작 클레어 배런 윤색/연출 이오진

20세기 블루스 연극 5.30-6.17

작 수잔 밀러 윤색/연출 부새름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연극 6.27-7.15

작/연출 정진새

공동기획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판소리 4.8-4.22

각색/연출 입과손스튜디오

아이히만,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연극 7.22-8.6

작 스테파노 마시니 연출 이은준

DAC Artist

잘못된 성장의 사례 연극 9.5-9.23

작/연출 강현주

러브 앤 인포메이션 연극 10.17-11.4

작 카릴 처칠 연출 진해정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 신작 연극 11.21-12.9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3 1.11-2.15

이은희 개인전 3.8-4.5

두산인문극장 기획전-눈은 멀고 4.19-5.20

김영나 개인전 6.7-7.8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7.26-8.30

정희민 개인전 9.13-10.21

두산갤러리 기획전 11.15-12.16

DOOSAN
ART
CENTER

교육 프로그램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3.1-12.31

두산인문극장 2023: 강연 4.3-7.10

두산아트스쿨: 미술 3.16-4.6, 10.5-10.26

두산아트스쿨: 공연 7.28-8.18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7.3-8.17, 10-12

공모 일정

공연

DAC Artist 1.9 - 1.26

공동기획 5.8-6.7

두산아트랩 공연 6.12-7.12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2.6-2.17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4.3-4.14

두산아트랩 전시 7.18-8.1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